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18일 화요일 음 4월 7일 (14돌)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C 내외, 낮 최고기온은 21~23°C로 전망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오후, and values for 30%, 제주, 20%, 성산, 20%, 고산, 10%, 서귀포, 20%.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05:32), 달뜨기 (10:27), 해질 (19:29), 달짐 (00:17), and other times.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등 생활지수 정보.

주간예보 table with columns for Day, Weather, and Temperature (e.g., 내일 맑음 16/24°C).

월드뉴스

중국인구 '남초현상' 여전... 심각 수준

남성 3000만명 배우자 못 구해

중국인의 오랜 남아 선호와 40년간 이어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 여파로 중국 인구의 '남초현상'이 심화하면서 결혼 적령기에 도달했으나 짝을 찾지 못한 중국 남성이 30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오지에 거주하는 남성.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1200만명의 성비도 111.3으로, 10년 전의 118.1보다는 완화됐으나, 성비의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 인구는 약 14억1178만 명이었다. 전체 인구 중 남성이 51.24%, 여성이 48.76%로, 남초 현상은 10년 전보다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했다.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인구)는 105.07로, 2010년 105.20보다는 다소 개선됐다. 독일 뷔르츠부르크 소재 울리우스 막시밀리안대의 본 알파만 교수는 "지난해 태어난 1200만명의 중국 신생아 가운데 60만명 가량의 남아 어린이가 성인이 될 때 신부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한라칼럼



이 남 호 제주대학교 화학·코스메틱학과 교수

나는 대학에서 천연물화학 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천연물이 대마(cannabis)에서 유래한 카나비디올(CBD) 성분이다.

산업용 대마(헵프) 글로벌 시장에 대한 관심

연성분이 발견되며 THC와 CBD가 주요 성분이다. CBD는 THC와 달리 환각성이 없으며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다.

CBD는 2018년 미국에서 난치성 질병인 소아간질병 치료제로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의 소재로 CBD 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고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대마와 헵프는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단어이다. 대마 중에서 환각성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소재를 헵프라고 한다. 그러므로 헵프는 산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대마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헵프산업이 시작되고 있다. 대마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우려와 기

대를 검증하기 위해 2020년 7월 경북 안동시에 규제 자유특구 지역을 지정했으며, 올해 5월부터 CBD 추출 목적의 헵프 재배, 잎·꽃의 활용, 의료제품 제조 관리 등의 실증 사업이 시작됐다.

제주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헵프산업 진행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의 입장에서 화장품 산업과 연계하여 피부 관련 아이템을 발굴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열린마당

200만명 이상 된다면 관람객은 어디에



송 용 림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공원운영과장

제주돌문화공원이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을 마쳤다. 22년 만의 결실이다. 제주돌문화공원은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돌문화공원의 목표 관람객 수는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추진한 '제주돌문화공원 관광지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다. 기초 자료는 탐라목석원에서 제공한 1995년부터 1999년 사이 관람객 평균과 당시 10년간 관광증 증가율 6.41%를 적용해 돌문화공원 관람객 수를 2012년 132만명, 2020년 217만명 추정결과가 나온으로써 경제성 분석(B/C)에서 1.291로 타당하다고 판단돼 설문대할

망전시관 건립공사 등 돌문화공원 사업 뼈대들이 갖춰지게 된 것이다. 만약 당시 수요 추정 결과가 현재 연간 관람객 20여 만명으로 나타났

5월, 가족 해체에서 가족 합체로



한 성 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서에서 통합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글쓴이는 복지급여 접수 후 첫 단추에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정하는 일을 한다.

경험한 사람들도 있다. 어려서 부모가 이혼해 조부모나 친족에 의해 양육되거나 보육시설에 위탁된 경험이 있다. 가정 내에서 방임이나 학대를 받았거나 불화나 열악한 생활환경을 펼쳐 일찍이 가출한 이들도 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족이 해체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명서와 직전 1년간 요구불통장의 거래내역, 지출 실태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한다.

반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거래 등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가족도 있다. 부모나 자녀가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대응하고 본인의 사적 영역을 조사에 협조하면서도 가족의 도움과 양육을 바라는 사람들이다.

어려우니까 헤어지는 가족도 있지 않나 어려우니까 못지는 가족도 있다.

이혼한 아들, 딸과 손자녀들의 돌아올 동지가 돼주는 어머니, 실직·파산한 아들, 딸의 고향이 돼주는 아버지, 장애인 부모의 기둥이 돼주는 아들, 딸.

부양의무자는 공공부조에 앞서 사회의 기본 단위로 가족이 경제와 정서 공동체로서 서로 부양하고 지지하라는 호 정신을 법에 반영한 제도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핵가족화가 일반화 되고 가족관념이 느슨해지는 것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가족으로서의 정서적 지지와 돌봄의 일부 기능은 유지되어야 할 것 아닐까. 부양의무자라는 수동적 기능보다 가족이라는 능동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

신록이 푸르다. 그 푸름의 생명력이 어디로 부터 시작되었나 본다. 줄기를 타고 뿌리로 이어진다. 잎과 줄기와 뿌리가 모여 하나의 나무를 이룬다. 나무가 돼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는다. 우리는 부양의무자인가, 가족인가.

Advertisement for Cocoly fertilizer, featuring product benefits, testimonial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Nongopco.

Advertisement for Gamgul (감귤) products, listing various types and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for Gamgul Resources.

Advertisement for Gamgul (감귤) products, listing various types and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for Gamgul Resources.